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 12:13-14

전도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노년의 상황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 보기 바랍니다.

1. 가치관을 바꾸라

전도서의 저자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2)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다섯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실속없다’ ‘비어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질문만 잔뜩 있고, 정작 답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대한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2.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험들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좀 하려고 하면 시험들어서, 상처받아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시험들고 상처만 받으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십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검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확인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점검인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매우 의미있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의미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 9:9)

행복한 인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충실하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3-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보다 더 가치있고 더 우선되는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눔의 시간

1. 전도서 1:2 에는 ‘헛되다’는 말이 다섯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도 전도자의 이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허무한 때’를 경험했었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설교에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예수 믿고 난 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 28:18-20)을 함께 읽고, 나는 이 말씀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